

윤구병 <함과 됨>

제11강 - 상황에 따른 인간의 행동
(1교시)

◆ 인간의 행동 양태와 습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죠? 상황이 바뀔 때 혹은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긴장된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현재까지 대응해왔던 방식으로 미래의 사태에 대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농촌의 한 마을 공동체가 전 우주가 돼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뒷산에 묻히는, 시간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삶 속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슬기롭게 살아오면서 가뭄도 겪고 큰물도 겪고 관혼상제 등 여러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어른들이 질문에 대답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농경공동체에서만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경험 확장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유목사회에서도 때 지어 다니면서 목축을 하거나 부족한 목축지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인한 사람이 앞장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도시사회에서 나오는데, 특히 한 개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독재에 의해 강제된 상황이든 혹은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서로 용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당 안을 걷는데, 저는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왼팔과 오른팔의 각도가 어떤지, 보폭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에서 제 동작은 자동화됩니다. 보폭과 팔이 움직이는 각도가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 신체 동작의 자동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머리로 어깨 각과 왼팔의 움직이는 각을 몇 도로 하지? 왼손은 이런데 오른손은 몇 도로 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두뇌는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작을 자동

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깜한 밤중이라든지 혹은 히말라야에 가게 될 때는 보폭 하나하나, 손동작 하나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의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attention(주의)이라도 하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 있을 때만, 우리 몸동작을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사태에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식은 잠들고 자동화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 동작은 기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자동화는 외적인 강제가 엄청나게 심해서 도무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겠다는 상황이 조성될 때나, 그런 체제에 있을 때 우리 의식은 짓눌리고 동작은 최소한으로 바뀌면서 자동화가 됩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죠. 동작에서 자동화는 개인의 행동에서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삶에 길들여진다는 말이죠. 상황이나 체제가 완고하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게 될 때, 사고라든지 우리의 행동양태가 그것에 길들어서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삶의 형태가 자기 뜻과는 달리 모든 것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결이 될 때도 거기에 젖어서 길들여지고 우리의 습관이 거기서 형성됩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보면 관습이 형성되죠. 그리고 그 관습은 윤리나 도덕으로 나타납니다. 법의 형태로도 나타나죠. 그런데 법은 강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이나 윤리 도덕보다도 가변성이 더 큼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우리가 도덕률을 익히고 윤리적인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적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죠?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있을 것이 없고, 없을 것이 있는 세상이 나쁜 세상이다. 우리가 없을 것이 있는 세상, 그러니까 억압, 불평등, 증오, 전쟁, 이기심, 탐욕들이 만연된 세상에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 적응해서 내 살 길을 찾자.' 이렇게 길들여지고 그 상황이나 체제에서 자기 자신을 순응시켜 행동을 굳혀가서 행동 패턴이라든지 사유방식을 특권화 시키고 그것이 한 사회 전체를 지배해 증오와 이기심, 탐욕이 들끓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때, 희망이 없는 거죠? 나쁜 세상에 물든다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을 마비시킨다는 것에서 대단히 절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것, 없어야 할 것, 있을 것, 있어야 할 것은 현재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의 삶과 연결되고, 당위라고 하는 것, 윤리 규범, 도덕이라는 것은 미래의 삶과 연결돼서 이끌어내야 하는데 과거의 굳어진 가치관을 기초로 해 그 과거와 현실이 바뀌지 않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판단 아래에서 없을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마비된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주저앉히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길들여지는가,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한 사회 자체에서 한 관습으로 굳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농경사회에서 어른들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얻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고 윤리관이나 가치관, 도덕률로 굳어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목사회에서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사회는 어떻게 보면 식인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델리카트슨>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식량을 돈으로 쓰고, 사람고기를 먹죠. 겉으로 드러나지만 앓을 뿐이지 식인사회입니다. 도시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그가 처한 상황과, 어떤 체제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변환시킨다, 그러죠? 일종의 변형, 변환(Metamorphosis)인데 자동화나 습관, 기제에 대해 잘 꿰뚫어보려면 고도의 비판의식과 창조적인 지성이 필요한데, 비판의식이 왜 필요하냐면, 없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이건 없어야 할 것인데, 없어야 하는데' 하는 처방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의식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파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질서율을 파괴하거나 기존 도덕률, 기존 가치관을 파괴할 때 현실적인 파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9.11테러가 일어난 게 지난 육년 전인가? 군산복합체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건물, 미국 방부 건물을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했죠. 여러분들한테 귀뜸은 했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이 제일 세다, 그래서 이 바보들아, 미국이 왜 져 세냐? 아프카니스탄이 제일 세다. 그래서 아프카니스탄이 제일 센 이유를 말했죠. 미국이 혼자 침공하기 두려워서 탈레반 정권이라고 군사가 오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낮은데다가 어쩌나 외교 역량이 부족한지 파키스탄 하나만 아프카니스탄하고 국교를 맺고 있고, 미국이 무서워서 국교를 전부 파괴한 나라인데, 그곳에 미국이 혼자 쳐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예순 여섯 개 나라를 줄 세워 쳐들어갔습니다. 아프카니스탄은 그 전에 강력한 소련군이 와서 탈레반을 소탕하려고 해도 버텼거든요. 그렇다고 외교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 돈 받아 소련하고 대전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한 지 6,7년이 돼서 다 소탕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체 국가의 54%를 굶어보고, 미국을 비롯한 센 연합군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카니스탄이 최고로 센 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삼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차 세계대전은 십여 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죠? 일차 세계대전과 이차 세계대전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식민지를 뺏으려고 싸우는 사태가 그대로 우리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삼차전도 국가들 사이에서 땅 뺏기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WTO 체제도 세계대전의 한 형태인데, 이제는 완성된 금융독점자본에겐 국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정권은 오사마 빈라덴이나 다른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삼차대전의 형태는 내란입니다. 내란으로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 굉장히 인

류를 위해서 큰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편 갈라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류를 몇 천 번 몰살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가동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뒤섞여 있으니까 자기나라 안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가 국가라는 단위로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서로 결탁해 다른 나라의 자기 형제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이차대전 이 벌어지게 될 때 사회동포주의를 부르짖고 국제 연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애국심에 불타서 동료들의 가슴에다 총을 겨누었죠. 이제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노예화 시키고 착취해야 할 계급이 누구고 자기가 연대해야 할 계급이 누구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선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 모범을 9.11테러가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자들과 맞장 뜨자고 하는데, 그건 뻔하죠. 석유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당선되면 곧 잡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윤구병 <함과 됨>

제11강 - 상황에 따른 인간의 행동
(2교시)

◆ 상황에 따른 인간의 의식과 행동 변화

비판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때려 부수는 것은 삼시간에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때려 부수고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이냐, 없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만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식은 분명히 갖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없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살자, 서로 우애 가지면서 살자, 전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연관 지어서 이걸 없는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겠어, 길러내야겠어. 이렇게 될 때 그 창조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는 지성의 집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애 터지고 지루하고 힘든 건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설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요? 물론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은 손, 발, 몸을 놀려서 합니다. 손, 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이 되어 있어야 건설 사업에 동원이 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부른 이야기가 80% 정도 들어 있으니깐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윤구병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언제~’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동 웃음)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비극인 문화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십여 년 이상을 마오가 생존해 있었고, 사인방이 전면에 나섰을 때는 세계가 온통 중국의 문화혁명에 열광했었습니다. 요즘은 체 게바라를 읽고 다니듯이 그 당시에는 마오가 최고였습니다. 그 후로 사인방이 몰락하고 급속도로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세계 강국의 대열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따르는 주자파라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의식과 창조의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비판의 대상으로 몰아넣어서 혹독하게 징벌을 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등소평 체제가 등장해서 급속도로 시장경제 쪽으로 경제정책을 바꿔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중국에서 부정부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 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온 사람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다 망가졌을 텐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공산당 당원이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데 몇 백만 단위로 공산당에서 난 이런 공산당 싫다 하고 총성스런 당원들이 앞장서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간해선 허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마오 시절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끌려가서 농촌에서 몇 년, 공장에서 몇 년씩 몸으로 때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당원들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패가 적고 거기에 완충부대가 생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요즘 루시퍼 이펙트라고 이 주일 동안 감옥체험을 해서 아주 건강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을 선발해서 둘로 나눠 한 쪽은 간수 역을 맡고, 한 쪽은 죄수 역을 맡아 보기로 해서 스탠포드대학 지하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 대학생들이 감옥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 특정한 역할, 특정한 체제 속에 넣었을 때 심리상태와 행동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것을 지켜본 유명한 실험이죠. 그런데 너무나 급속도로 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죄수로 여기게 되고, 노예화 되고, 5일도 안 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망가져갑니다. 교도관 역을 맡은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 사람 본 성정이 본래 악하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주일 동안 하려 했던 실험을 5일 만에 중단시키는 사태가 옵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스탠포드대학 심리학과 짐바르도라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란 교수인데, 베트남 전쟁에도 반대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체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삼시간에 망가뜨리고 역할 놀이가 인간성을 대신하게 되는지, 그 역할에 인격이 바뀌는 기간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엑스페리먼트>라고 해서 나중에 영화화되기도 하고, 많은 책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제와 상황이 사람을 규정하는 힘이 너무 커서, 책상머리에 서는 혁명가이기도하고, 영웅이기도 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상황이나 체제의 압력에 짓눌리게 될 때 어떻게 망가지고 변하게 되는지를 실험하는데, 문제는 설득을 통해서나 토론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상황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을 돌리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 실험인데, 불행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창 빠져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적용범위, 여기에도 농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 생산관계가 건강하게 바뀔에 따라서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생산력은 무한히 다양화되고, 무한히 커가는 욕망을 무한히 다양하게 충족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쪼는 질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페킹 오더(peking order)를 아시죠? 먹이를 적게 주면 제일 힘 센 닭이 다른 닭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쪼아버리고 혼자만 다 먹고, 배가 차면 물러나고, 그 다음 힘이 센 놈이 쪼고 배가 차고 물러나고, 힘없는 놈은 나중에 비리비리 말라 죽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쪼는 질서, 페킹 오더(peking order)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생산관계가 건강해져서 생산력이 무한히 발전하게 되면 쪼는 질서가 없어지고, 자연히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신화는 믿지 않죠. 우선 지구라는 생태 환경 자체가 무한한 탐욕에 길들여져 있는 도시인들이 물질 에너지를 펄펄 써서, 살아가는 것은 과거 삶의 자산, 미래 자손들이 물려받아야 할 자산까지 짧은 시간에 전부 탕진해버리고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부 동의를 한 거죠. 지구라는 한정된 행성에 생명자원이나, 물질 자원이나 한정돼 있는데, 이걸 펄펄 써버리면 온 인류가 모두 무한히 증가하는 생산력에 따라서 무한히 증가하는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답은 제대로 된 답이 아닙니다. 그에 대신할 대안들이 없고, 그나마 이 정치경제학이 현재까지 가장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인 역량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중농주의냐? 옛날에 중농주의, 중상주의,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까, ‘너 그럼 혹시 아미쉬공동체(21세기에 살면서도 17~18세기 청교도적 삶을 고집하는 아미쉬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거 아니냐?’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늙고 병들어서 곧 죽을 사람인데, 다만 제가 사는 공동체도 전기를 쓰고, 전화도 쓰고, 컴퓨터도 있고, 텔레비전은 안 보지만 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물질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 에너지는 확산에너지로 폭발 시켜서 얻는 에너지인데, 이 폭발과정에서 80% 이상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 낭비된 에너지는 전부 대기를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산업쓰레기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생체에너지는 응집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divergent(확산), convergent(응집)이란 말 알고 있죠? 응집에너지가 사용되는 데는 낭비요소가 최소화되고, 산업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순조롭게 순환하는 쪽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삶의 공간이 도시사회에서는 소비만 있고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뇌로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겠지만 두뇌로 생산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눈으로 주고받고, 코로 주고받고, 입으로 주고 받아서, ‘나 배 부르네~’ 그러진 못하고 아직도 유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유기물은 자연과 인간관계 속에서만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생산지가 도시내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할 것을 생각해서 도시 사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전부 식민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충격을 안 받더라고요.